

# 영어 성경이 영미 언어, 문학, 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 학교 영어교육의 발전에 관한 소고<sup>1)</sup>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최수영(교육 1-3)

## 논문초록

한국 교육의 목표와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 학습을 통하여 국제 사회 속에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하고, 장차 국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하고 영어 사용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욱 깊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이러한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성경의 내용을 학교 교육에서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을 금기시 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고에서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성경의 위상과 중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밝히고 한국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공교육에서 활용해야하는지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어:** 영어성경과 영어교육, 영미문화와 영어교육, 영어교육과 성경, 영어교육에서의 성경의 위상

---

1)본 논문의 상당 부분이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지인 『영어교과교육학7』(2), 53~86에 “영어성경과 영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출판되었고 또한 성경의 창세기에 대한 부분은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지인 『영어어문교육16』(4)에 “영어성경이 영미 어문학-문화에 끼친 영향: 구약성경 창세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실린 내용이다. 그리하여 본 소고에서는 두 논문에서의 내용이 중첩된 부분은 출처를 밝히는 동시에 “신앙과 학문”이라는 접목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재조명을 하였다.

## I. 서론

영어와 영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성경은 서구인들 특히 영미인들의 의식깊이 뿌리박힌 세계관을 제공했으며, 따라서 영어에는 알게 모르게 사용되는 성경적 표현이 참으로 많다(최수영, 2008). 영국의 브래타니카 백과사전 위원회에서 성경이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경이 서구 문명의 정부 사회 단체 그리고 철학과 경제 이론의 원천이 되었으며 지적, 도덕적, 영적 이상(ideals)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친근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관계는 때때로 폭풍적이었으나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성경은 이미지리와 이야기의 보고이며, 시, 노래, 찬송, 수수께끼, 서한, 역사, 격언, 교훈 등 문학의 모든 장르와 소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영어 언어와 문학의 보배를 제공하는 훌륭한 고전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최수영, 2008).<sup>2)</sup>

성경만큼 영국민의 가슴과 언어에 깊이 파고든 책이 없으며, 그리스인들에게 호머가 아랍인들에게 코란<sup>3)</sup>이 그랬듯이 성경은 영어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Frye, 1982). 빅톨 위고는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으니, 하나는 영국이 만든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영국을 만든 것인데 바로 셰익스피어의 걸작과 영어성경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다(Haley, 2002). 또한 셰익스피어가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성경이었으며, 그의 작품에는 1300개 이상의 성경의 인용구가 있다. 그리하여 성경이 없었다면 셰익스피어의 걸작들이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한다(Schippe & Stetson, 2005)

영미문학 작품 속에는 많은 성서적 인유(biblical allusions)가 나온다. 인유란 과거의 역사나 문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미문학에서는 어떤 다른 문학보다도 성경에 대한 인유가 더 많다. 그러므로 영미문학을 올바르게 깊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요 필수적이고 효율적이다(Frye, 1982; Ryken, 1984). 영어 성경은 종교적 성서임과 동시에 당대 최고의 영어 석학들이 번역한 고급 영어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영어문장으로 이루어진 영어 성경으로 신심과 동시에 영어 실력까지 키울 수 있게 구성된 책이다(조신권, 1992).

---

2) When the *Encyclopedia Britannica* surveyed the influence of the Bible on Western civilization, it declared that it has become the most available, familiar, and dependable source and arbiter of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ideals in the West, And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calculate the effect of its underlying moral suppositions on Western government, social institutions and even economic theories. The Bible has done all of this because of its basic message of God's relationship with men, often stormy, always loving. The book of the Bible contains a wealth of imagery and stories. They also contain poetry, songs, hymns, riddles, letters, history, proverbs and, above all,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The Church News*, 2006).

3) 성경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경전이 코란이다. 코란은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선지자로 믿으며, 그러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마호멜이라고 믿는다. 마호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주었다는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와 요한의 부모에게 나타나 계시를 주신 천사 이며 현대의 계시에 의하면 아담의 9대 후손인 노아(Noah)이다.

유성덕(1985, 1991)은 영미인이든 아니든 영문을 습득하여 독자적인 문체를 만들어 낸 사람으로서 성경의 영어를 습득하지 않고 대성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며, 영어성경은 오늘날 영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고 있으며 영문학의 기본적인 rule과 principle을 명확하고도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형식으로 발견하는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의 연설 스피치 라이터인 소렌슨이 그러했고 한국에서는 ‘한국 방송 사상 가장 자유롭고 영향력 있는 앵커로 평가받는 그리고 말 잘하기로 유명한 백지연 앵커가 그러했다.’<sup>4)</sup>

조신권(1987, 1992)은 성서는 Anglo-Saxon 시대 이후 지금까지 영어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영국인들의 대화 속에 성서의 구절이 토착화되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영어표현에 대한 성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와 영문학에서 반영되는 성서적 요소는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밖의 수사, 비유, 문체 등에서도 수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King James Version(KJV)은 외래어가 아닌 순수영어를 90-96%까지 사용하고 있고 순수영어를 즐겨 구사하는 작가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쳤다. 특히 17세기 영문학은 KJV의 출간에 즈음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찬란한 산문학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을 것이다(유성덕, 1991; 조신권, 1987, 1992; 최수영, 2008, 2010).

하버드대학교의 Robert Kiely 교수는 성경을 모르면 영미 작가의 세계와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인문학의 풍부하고 중요한 보고를 쌓는 것이며, 성경은 계속적으로 동서양 그리고 아프리카의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니, 성경을 모르면 세계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영미 문학은 성경의 전설, 도덕, 성경의 인물, 성경의 은유, 성경의 상징에 깊숙이 연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영미 문학을 한다는 것은 외국어의 기본이 되는 문법과 어휘를 학습하지 않고 그 외국어를 말하고 읽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Bible literacy report II*, 2006, p. 8; 최수영, 2008, 2010).

4)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스피치 라이터였던 소렌슨의 사망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실 만물상(박해현, 2010년 11월 1일)에 의하면 소렌슨은 네브래스카 주도(州都) 링컨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링컨 동상에 새겨진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읽고 또 읽으며 자랐다고 하였다. 그는 생전에 케네디 취임 연설문은 성경,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제퍼슨과 처칠의 명언을 두루 참조해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연설문의 원칙으로 ‘간결’ ‘단순’ ‘명확’을 꼽았다. 성경의 십계명을 교과서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케네디가 ‘범죄와의 전쟁’ 같은 강경한 말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케네디 연설은 극단적 정쟁을 피하고자 했고 미래지향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케네디와 소렌슨은 ‘대통령의 명연설이란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야 한다’는 걸 일찍 깨달은 명콤비였다(조선일보 사실, 박해현, 2010).

MBC TV <뉴스데스크> 최연소이자 최장수 앵커(9년), 국내 최초 프리랜서 앵커.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로 건 최초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한국 방송 사상 가장 자유롭고 영향력 있는 앵커로 평가받는 그리고 말 잘하기로 유명한 백지연 앵커는 말하기를 “저는 성경을 늘 곁에 둡니다. 침대 옆에도 한 권, 책상이나 화장대 위에도 한 권씩 두고 생각날 때마다 찾아 읽고는 합니다. 의기소침해질 때는 ‘여호수아’, 쓸데없는 욕심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전도서’, 세상에 의문이 들 때는 ‘욥기’를 읽습니다.”(이임광, 2010)

## 2. 연구의 목적

- (1) 영어학습과 영어교육에서 영어성경의 위상은 무엇이며, 왜 영어성경이 영어와 영미문화 그리고 영미 문화의 이해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유를 살펴본다.
- (2) 영어성경이 영어와 영미 문화, 역사 그리고 언어생활에서 끼친 영향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특히 영미 문화 작품, 관용어구, 그리고 영어권 원어민들의 문화 및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실상을 조사한다.
- (3) 영어성경을 영어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고찰하고 한국 학교 영어교육을 위해 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영어성경이 영미 언어 문학 문화에 끼친 영향

### 1. 영어교육과 문화교육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개정 영어 교육과정에는 영어 학습을 통한 영미 문화의 이해를 넘어 영어 상용 국민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까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외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까지도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과학기술부, 2008). 그리고 언어 소재로 학생들의 도덕심을 양양하고, 근검 절약과 근로 정신을 함양시키며, 개방적 안목과 합리적 사고를 길러 줄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인간성을 풍부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어 독서에 있어 사회 문화적인 사전 지식이 없이는 독서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외국 문화의 다양한 지식과 외국인의 사고 방식, 관습, 논리적 전개 방식, 어법이나 어조 등까지도 학습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영어권 국가의 사회적 및 그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사상도 학습해야 한다. 그래서 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문화능력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를 언어 자료의 한 영역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화내용의 분류를 살펴보면 물질문화(things-having), 행동문화(norms-doing), 정신문화(ideas-thinking)로 분류되고 있다(Bierstedt, 1957).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상의 목적이 '목표어의 언어적 기능 못지않게 그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있다.'고 하였다(Jesperon, 1961).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소재로 주로 실용적인 생활양식으로서 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인사, 감사, 사과, 전화, 약속, 호칭, 약속, 소개, 초대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행동규범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Bierstedt가 말하는 행동문화에 대한 것이다. 물질문화는 지형, 기후, 유적지, 유물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술된 책들이 그림 및 사진과 함께 잘 나와 있어서 학생들에게 쉽게 교수학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영·미인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다루는 정신문화 소재와 교육은 추상적이고 다루기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다루어져 왔다(김경한, 2007, 2008). 그러나 Byram(1989)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외국어를 배우고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의 소제에서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을 기르도록 한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교육을 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물질문화와 행동문화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한층 문화 교육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재미있는 배경이나 문화 이야기,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위해선 이제는 영·미 문화 기저에 있는 그들의 정신문화에까지 상세한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김경한, 2008; 김무신, 2008; 최수영, 2007, 2010). 이러한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영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 2. 성경이 영미 문화에 끼친 영향: 우주와 지구 창조의 기원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 1장은 자연계의 창조에 대해 간결하고 우아한 문체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stirring narrative)로 시작되며, 세계 문학의 걸작 중의 걸작으로 여겨진다.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2.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4.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5.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16.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17. And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18. And to rule over the day and over the night, and to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19.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ourth day.
24. And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 after his kind, cattle, and creeping thing, and beast of the earth after his kind: and it was so.
25. And God made the beast of the earth after his kind, and cattle after their kind, and every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26. And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and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

29. And God said, Behold, I have given you every herb bearing seed, which is up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every tree, in the which is the fruit of a tree yielding seed; to you it shall be for meat.

30. And to every beast of the earth, and to every fowl of the air, and to every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wherein there is life, I have given every green herb for meat: and it was so.

31. And God saw every 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ixth day.

### 3. 창세기의 창조와 성경이 음악에 끼친 영향

고전 음악의 대가(모짜르트, 하이든, 베토벤)의 한 분으로 여겨지고 심포니의 아버지 또는 4중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이든(Joseph Hyden 1732-1809)은 영국의 귀족의 의뢰로 창세기(Genesis)에 나오는 우주의 창조의 장엄함을 나타내는 성구들을 가사로 삼아 『천지창조』 "The creation" 이라는 음악으로 만들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합창으로 부르고 있다. 원래 성서의 창세기에 기초하고 존 밀턴의 서사시 『실낙원』(The Paradiice Lost)를 참고한 이 작품의 대부분은 '고트프리트 판 슈비텐' 남작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하이든의 여러 훌륭한 작품 중에서도 "The Creation"은 가장 위대한 대표작으로 여겨진다.

하이든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서 열린 '헨델'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는 '헨델'의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헨델을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도 위대한 하느님의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창조자에 대한 숭배와 예배'에 영감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으며, 듣는 자로 하여금 '창조자의 자비와 전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

여 쓰여졌다고 한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오랜 세월에 걸친 작곡 활동으로 축적되어진 대위법적 기법과 천성적 기법을 원숙하게 동화시킨 『천지창조』는 묘사적인 서법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친숙하기 쉬운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의 성품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http://en.wikipedia.org/wiki/The\\_Creation\\_\(Haydn\)](http://en.wikipedia.org/wiki/The_Creation_(Haydn)))

『천지창조』의 작곡에 전념하고 있던 시기는 하이든 생애에서 가장 풍요하고 가장 행복한 때였다. 하이든은 신앙심으로 고양되었고 하느님과 영적인 교감을 가졌다. 그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완전히 작곡에 몰두했으며, 그의 본성 가장 깊은 곳에 깃든 힘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는 작곡을 마칠 때마다 각 작품의 끝에 "하느님께 영광을(Laus Deo)"이라고 써넣었다. 하이든의 모든 작품은 천상의 아버지를 찬미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천지창조』였다.

헨델의 『메시아』가 힘차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면 『천지창조』는 단아하고 소박하게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을 그려냈다. 1798년 빈의 슈바르첸베르크 궁전에서 초연되어 절찬을 받은 이 작품은 하이든 음악 생활의 총결산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리고 친숙하고 쉬운 멜로디와 간결, 소박한 구성이 이 곡 『천지 창조』를 오랫동안 세상에 남을 명작으로 만들었다. 동화상과 가사 그리고 음악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4gzEPvbTVXc&feature=related>

1808년 하이든의 마지막 공연에서 그의 제자 베토벤도 참석하였고 공연이 끝난 후 베토벤은 노장의 스승을 찾아 무릎을 꿇고 알현하면서 그의 손에 키스를 하였다(Schippe & Stetson, 2006, p. 29).

베토벤은 자기의 스승의 천지창조와 헨델의 메시아 같은 천상의 음악을 작곡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자신이 최고작으로 평가한 장엄미사(Missa Solemnis)은 종교적 교향곡으로 불리울 만큼 성악가들이 기악적 성악부분을 처리할 수 있어야 연주가 가능한 작품이며 5년 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베토벤은 교회음악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 『장엄 미사』에 대하여는 스스로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베토벤은 이 작품을 쓰면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곡에서 합창을 헨델의 합창곡, 특히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면 Agnus Dei에서 Dona nobis pacem에 주어진 선율은 『메시아』 할렐루야 코러스 중 ‘And He shall reign for ever and ever’의 선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너무나 길고 복잡해서 보통의 전례용 미사곡이라기 보다는 미사 통상문을 사용한 목소리와 악기에 의한 교향곡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헨델의 메시아와 함께 초교과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dhdsd.or.kr/xe/7889> 음원출처: 전남중등음악사랑연구회, 2008).

#### 4. 성경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 (1) 창조자(Creator)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연계와 인간을 말씀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창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는 유명한 그림이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미켈란젤로(1475~1564)에 의해 그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의 극치인 인간 즉 “아담의 창조”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다. 라파엘(1483~1520)은 “동물의 창조”를 그렸고 또한 영국의 공상화가요 시인인 William Blake(1757~1827)는 창조주께서 공허한 공간에 빛을 창조하고 물질들을 조직하는 “Ancient of Days”그림(1794)을 그렸고, 미국의 대표적 회사 중의 하나인 GE(General Electric)의 본사 뉴욕 빌딩 입구에는 William Blake의 그림을 각색하여 창조주께서 빛을 창조하는 조각 작품에 “WISDOM AND KNOWLEDGE SHALL BE THE STABILITY OF THE TIMES”라는 문구와 함께 본사 입구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

창조주를 나타내는 “Ancient of Days”는 미술과 음악의 많은 작품의 원천이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가사를 붙인 뮤직 비디오가 유명하고 또한 그러한 제목으로 노래와 콘서트도 하며 영미인들의 생활에 깊이 연루되어왔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 **The Ancient of Days**

“Blessing and honor, glory and power be unto the Ancient of Days  
From every nation, all of creation, bow before the Ancient of Days  
Every tongue in heaven and earth shall declare your glory  
Every knee will bow at Your throne in worship,  
You will be exalted, oh, God and Your kingdom will not pass away,  
Oh, Ancient of Days”

Ancient of Days에 대한 음악 비디오와 동화상 그리고 콘서트를 다음의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창세기의 창조가 Pop Culture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감상할 수 있다. .

Music Video with Lyrics (<http://www.youtube.com/watch?v=0UAUydlhRFY>)

Ancient of Days (worship video w/ lyrics) <http://www.youtube.com/watch?v=HBcP1ICgUIM>

CONCERT(7min): <http://www.youtube.com/watch?v=UOe5GpqFJrE>

Auguste Rodin(1840-1917)은 프랑스의 조각가로,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 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The hand of God” or “The Creator”라는 제목의 대리석 조각과 청동 조각을 하였던 데 아담과 이브가 거친 대리석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조각하였다 ([http://www.metmuseum.org/toah/hd/rodn/ho\\_08.210.htm](http://www.metmuseum.org/toah/hd/rodn/ho_08.210.htm))

## (2) 창세기의 창조와 과학(Creation and Science)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와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종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최수영, 2010).

과학적인 귀납법(Scientific method)을 제창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1561~1626))에 의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점진적인 전개는 과학적인 방법과 유추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자연과학의 기초를 제공하였고 그리하여 서양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하였다는 것이다(Schippe & Stetson, 2005, p. 34).

또한 제임스 심슨 경(1811~1870)은 하느님께서 이브를 창조할 때 아담이 깊은 잠에 들게 하여 갈비뼈를 꺼내어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마취를 하여 그렇게 했다고 믿고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빅토리아 여왕이 레오폴드 왕자를 낳을 때 자기가 발견한 마취제를 사용하여 여왕을 마취하였으며 그 때부터 그의 발견은 세상의 이목을 받게 되었다(Schippe & Stetson, 2005, p. 33).

Whorf(1897~1941)는 그 당시 진화론과 창조론 등 과학과 종교가 서로 갈등을 겪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히브리어와 영어의 세계관이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착안을 하게 되었고 히브리어를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 히브리어의 창조라는 의미와 개념이 영어권의 창조와는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히브리어의 창조는 'organize or fashion'의 뜻으로 조직되지 않은 물체나 원소를 조직한다는 뜻이고 영어의 'create'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창조주는 이 우주를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았고 'unformed and void'한 상태에 있는 물질들을 조직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언어가 다르면 우주를 조직하고 이해하는 틀이 다르다는 언어학의 한 유명한 가설 즉 언어는 인간의 인지, 즉 사고를 결정하고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서 인간의 사고도 달라진다는 언어 상대성 가설인 Sapir-Whorf hypothesis를 제안하게 된다(Carroll, 1956; Choi, 1986; 최수영, 2008, 2010).

## (3)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Integrity and equality of Human beings).

창세기에 의하면 창조자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였고 모든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 이러한 세계관은 서양뿐만 아니라 영미 문화 및 철학, 문학, 예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 나라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국부들 특히 토마스 제퍼슨이 주동이 되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Ellis, 2007;

Newcombe, 2009)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이 말은 영어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 중이 하나로 일컬어지며 미국 헌법이 작성되는 기초와 정신이 되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케티즈버그에서도 인용되고, 인권운동가 킹 목사의 연설, 그리고 최근의 버락 오바마의 연설에서도 인용된 유명한 말이며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유래한 표현들이다 (Ellis, 2007; Newcombe, 2009)).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1782~1852)는 성경의 영향력에 대하여 말하길 “The Bible is a book of faith, and a book of doctrine, and a book of morals, and a book of religion, of special revelation from God; but it is also a book which teaches man his own individual responsibility, his own dignity, and his equality with his fellow-man.”(Stevenson, 1967, p. 158)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온 인류의 첫 조상이요 온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국가 및 사회원들, 특히 영미인들의 인권(human right)에 대한 기본 사상이 되었으며 도덕, 사회정의 및 정치 및 법률에 영향을 끼쳤다.

## 7. John Milton and Paradise Lost(밀턴의 실낙원(失樂園))

밀턴의 『실낙원』은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 불후의 종교 서사시이다. 고전 서사시의 영웅으로서의 사탄과 그의 퇴화, 신과 섭리, 자유의지 문제, 에덴(Eden)에서의 타락 전 아담(Adam)과 이브(Eve)의 삶, 인간의 성, 하늘의 전쟁, 창조, 타락의 비극, 그리고 타락 후의 역사와 내적인 천국 등을 논한다. 밀턴의 『실낙원』은 17세기 정신세계를 집약한 근대문화의 꽃봉오리이자 인류문화의 찬가다. 호머의 『일리아드 오딧세이』가 그리스 정신을 증언하고, 버질의 『이니드』가 로마 정신을 대변하고, 단테의 『신곡』이 르네상스 정신을 보여주듯이 『실낙원』은 근대 청교도 정신의 정수를 여실히 드러낸다. 청교도 정신의 결실이 근대 문화란 점을 감안할 때, 『실낙원』은 근대 문화 원리와 이데올로기의 형상화라고 여겨진다(김봉군, 최혜실, 1988; 최재현, 1984).

『실낙원』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와 『요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 싸움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서사시엔 이러한 성서의 구절들이 수없이 삽입되어 있고, 또 고전에 정통한 학자

라도 현혹을 느낄 정도로 번거롭게 그리스, 로마의 고전과 그 밖의 여러 사상에 대한 지식이 나열 또는 인용되어 있다. 『실낙원』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성서적 주제를 다룰 때 흔히 빠져들기 쉬운 단색의 빛에다 고전의 깊은 맛을 가미해 준 데 있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인간의 운명과 신의 도리라는 장대한 문제를 고전적 전통의 빛을 가지고 조명해 줄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실낙원』은 인류문화의 두 원류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하여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기에 더욱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The Milton Reading Room, <http://www.dartmouth.edu/~milton>, Sept, 2010).

『실낙원』은 천상과 인간의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뤄 끝내 하나가 되는 방안으로 기독교 문화와 그리스 문화 또는 르네상스 문화와의 결합을 꾀한다. 과학과 철학, 종교와 예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낙원』에 나타나는 사상을 보면 종교개혁의 기본정신이며 청교도의 이상인 인간과 신의 일치 그 정수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천상과 인류의 법이 일치하는 접점을 찾고 하늘의 소리와 인간의 도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내내 강조한다. 서구 지성계는 『실낙원』을 발판으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조화와 통합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이성을 탄생시켰다 (김봉군, 최혜실, 1988; 최재현, 1984; 최수영, 2010).

#### 8.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조상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술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창세 12-23장) 유일신 신앙이나 선민사상, 그리고 계약개념 등은 모두 그의 이야기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 아랍 백성의 조상이 되었고, 합법적인 상속자인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하라고 명하시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공통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창22:1)" "네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22:2). 하는 말로 그 시험은 시작된다. 그 아들 이삭은 '사랑하는 독생자'라는 데 있다. 성경에서 보는데로 하나님께서도 번제로 바쳐야 할 이삭은 가리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생자" 임을 특별히 강조하셨다(창22:2). 이삭은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었다.

(창22:3)에 "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의 독생자 이삭에게 번제의 나무를 지게 했고 걸어가던 이삭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창22:6) 가는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22:7)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대답,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

리라”(22:8) 하였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달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 아들 이삭을 잡아 밧줄로 묶고 번제로 희생 하려”(창22:910) 할 때에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순종했다. 그는 사흘 길을 걸은 후에도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수 있는 육체의 힘을 가졌던 청년이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수족이 묶이고 그 몸이 번제단 위에 깔이 번쩍이는 그 밑에 놓여 지기 까지 가만히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저 순종만 하였을까!

유대인의 역사가 조세퍼스에 의하면 번제를 지낼 당시 이삭의 나이는 25세 였으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하길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후사로 택해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고통과 불완전한 이 세상이 아니고 고통이 없고 온전한 저 세상에서 너를 나의 후사로 택하셨는지 너를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고 설명했고, 이삭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과 아버지의 은덕이 아니었으면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의 경험을 하고 이렇게 성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 하셔야지요“하고 대답하고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순순히 순종하였다는 것이다 (Whiston, 1981. 『The complete works of Flavius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s. Chapter 13:2~4, PP. 36~37)<sup>5)</sup>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일의 갈보리였다.

- 
- 5) Chapter 13:2 Now they had brought with them every thing necessary for a sacrifice, excepting the animal that was to be offered only. Now Isaac was twenty-five years old...
3. As soon as the altar was prepared, and Abraham had laid on the wood, and all things were entirely ready, he said to his son, "O son, I poured out a vast number of prayers that I might have thee for my son; when thou wast come into the world,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contribute to thy support for which I was not greatly solicitous, nor any thing wherein I thought myself happier than to see thee grown up to man's estate, and that I might leave thee at my death the successor to my dominion; but since it was by God's will that I became thy father, and it is now his will that I relinquish thee, bear this consecration to God with a generous mind; for I resign thee up to God who has thought fit now to require this testimony of honor to himself, on account of the favors he hath conferred on me, in being to me a supporter and defender. Accordingly thou, my son, wilt now die, not in any common way of going out of the world, but sent to God, the Father of all men, beforehand, by thy own father, in the nature of a sacrifice. I suppose he thinks thee worthy to get clear of this world neither by disease, neither by war, nor by any other severe way, by which death usually comes upon men, but so that he will receive thy soul with prayers and holy offices of religion, and will place thee near to himself, and thou wilt there be to me a succorer and supporter in my old age; on which account I principally brought thee up, and thou wilt thereby procure me God for my Comforter instead of thyself."
4. Now Isaac was of such a generous disposition as became the son of such a father, and was pleased with this discourse; and said, "That he was not worthy to be born at first, if he should reject the determination of God and of his father, and should not resign himself up readily to both their pleasures; since it would have been unjust if he had not obeyed, even if his father alone had so resolved." So he went immediately to the altar to be sacrificed. And the deed had been done if God had not opposed it:...

그리고 번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바로 후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던 그곳이다. 묵묵히 번제단에 자발적으로 순순히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림자였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과 순종의 결과는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외쳤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호와와 신앙의 시험에 합격하고 온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아셨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알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만 그러한 시험을 하셨을 뿐만아니라 인류인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사랑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뜻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 번제의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오르던 그 모습 그대로가 곧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이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의 그 괴로웠던 마음에서 우리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또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의 자녀들인 우리 인류도 사랑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요한 3:7)".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괴홀려 제물이 되려는 이삭에게서 우리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순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범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sup>6)</sup> 그리하여 자기의 친구들인 우리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나니... 요한 15:13"

---

6) 요한복음 15:9-17: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에 대한 해석은 서양 철학의 두갈래에서 해석되고 있으며 영문학 작품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Shippe & Stetson, 1995, pp. 60~61).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4가지 가설하에서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종교적으로는 옳은 것이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층 수준을 높이기 위한 “leaf of faith”를 가져 왔으며, 신앙은 열정이 요구되며, 열정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결론으로 ‘faith requires passion, and passion is not something we can learn. We have to experience it ourselves, or else we do not understand it at all.’ 라고 하였다. Martin Buber(1878~1965)는 유대인 철학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에 대해 Kierkegaard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였다. 그는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해 너무 애착을 가졌으므로(우상 숭배의 성격)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사명에 대해 안목이 흐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 자신에 대한 사명을 뚜렷이 보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Wilfred Owen(1893~1918)는 세계 일차대전 때 영국의 장교로 군대에 근무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죄악에 대한 시인으로 유명하다. 오웬은 전쟁을 기성세대의 외교관, 장군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저질러는 잔인한 비극으로 보았고 그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고발하였다. 그의 시 “The Parable of the Old Men and the Young” 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어둡고 냉소적으로 비유하여 전쟁의 참상과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벨트와 가죽 끈’으로 묶고 즉 아들의 뜻에 반하여 군대에 몰아넣고 천사가 자존심의 양을 대신 번제로 들이라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죽였으니 유럽의 젊은이를 하나씩 하나씩 반을 죽였으니’라고 비유적으로 전쟁을 질타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인 George Segal(1924~2000)은 1970년 5월 4일 월남전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한창일 때 미국의 예비군 들이 데모를 진압하다가 Kent 주립대학의 학생들 4명을 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Kent 대학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젊은 여자가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의 총 몸통에 꽃을 바치는 것으로 작품을 만들도록 주문을 했으나, 시걸은 주문을 거절하고 대신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조각을 만들었다. 시걸은 Kierkegaard와 Buber의 작품을 읽었고 그리고 Owen의 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서 있고 건장한 이삭은 손이 밧줄에 묶인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조각을 만들었다. Kent 대학은 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보류했고 프린스턴 대학은 이 작품을 구입하여 현대 예술 전시관 교정에 세워놓았다 (Shippe & Stetson, 1995, pp. 60~61; <http://speccoll.library.kent.edu/4may70/exhibit/memorials/segal.html>).

#### 9. 아브라함의 성약과 미국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 공약(Mayflower Compact)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동일시 하였다. 그리하여 성약 혹은 언약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법적인 그리고 정부의 전통에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의 플리머스로 떠났다. 순례 시조들은 네덜란드로 망명하였던 영국의 급진적 청교도 분리주의자(English Separatist of Church) 35명, 그리고 영국의 종파주의자(English Sectarrians)와 메이플라워호 승무원 6명 등 총 102명이 타고 있었다. 메이플라워호에 올랐던 사람들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상원의원도 둘이나 있었다. 장군과 사업가, 의사, 교수들도 많았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 당당한 기득권자들이었지만, 장장 5,440Km나 되는 긴 죽음의 항해를 시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 처음 출발한 사람은 모두 102명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도중에 44명이나 죽었고 나머지 58명만이 신대륙에 도착했다. 1620년에 버지니아(런던) 회사의 식민 허가를 얻은 그들의 망명지 레이덴(Leiden)을 떠나 영국의 플리머스로 건너 갔다가, 108톤의 범선 메이플라워 호로 출항하여 50여일 만인 11월 9일에 예정 목적지보다 훨씬 북쪽인 코드 콧(Cape Cod)에 도착하였다. 버지니아 회사의 관할 밖인 이 지역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상륙에 앞서서 "시민적 정치 단체(a civil body politic)"의 결성을 약속하는 "메이플라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에 41명의 성인 남자 이민들이 서명하였다. 대륙에 오르기 전에 서명했던 아래의 "메이플라워호 공약"에 따라, 청교도들은 신대륙에서 자치 생활을 했다.

다행히 육지에 도착했지만 극심한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추운 겨울 동안 움막에서 추위를 피하다 봄이 왔을 때 잡초로 우거진 땅을 손이 부르도록 개간하여 농사하여 그 해 가을에 정성어린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그때 포세이돈 목사는 시편 126편 5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을 읽고 딱 두 마디 기도를 올렸다.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여! 이 미국 땅에 위대한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김학우 칼럼』 5월의 꽃, 메이플라워 (Mayflower)) 7)

#### Agreement Between the Settlers at New Plymouth : 1620

IN THE NAME OF GOD, AMEN. We, whose names are underwritten, the Loyal Subjects of our dread Sovereign Lord King James, by the Grace of God, of Great Britain, France, and Ireland, King, Defender of the Faith, &c. Having undertaken for the Glory of God, and Advancement of the Christian Faith, and the Honour of our King and Country, a Voyage to plant the first Colony in the northern Parts of Virginia: Do by these Presents, solemnly and mutually, in the Presence of God and one another, covenant and combine ourselves together into a civil Body Politick, for our better Ordering and

7) <http://eu.christiantoday.co.kr/oc/view.htm?id=183863>

Preservation, and Furtherance of the Ends aforesaid: And by Virtue hereof do enact, constitute, and frame, such just and equal Laws, Ordinances, Acts, Constitutions, and Officers, from time to time, as shall be thought most meet and convenient for the general Good of the Colony; unto which we promise all due Submission and Obedience. IN WITNESS whereof we have hereunto subscribed our names at Cape-Cod the eleventh of November, in the Reign of our Sovereign Lord King James, of England, France, and Ireland, the eighteenth, and of Scotland the fifty-fourth, Anno Domini; 1620.

1629년 마사츄세츠 시장이었고 청교도 지도자인 존 윈드롭에 의해 세워진 마사츄세츠 베이 회사는 신대륙 정착과 무역을 장려하였고 아브라함의 부름과 성약의 백성이라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1630년 뉴 잉글랜드로 가는 아라벨라의 배안에서 윈드롭은 동료 회사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할 것이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약을 비준한 것이며 우리의 심부름을 승인하여 인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설하기를 미국의 청교도들은 새로운 약속의 땅에 “...we must consider that we shall be as a City upon a Hill, (and that) the eyes of all people are upon us..” 라고 역설하며 미국이 기독교의 모범 국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으며 약속의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영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이 축복한 특별한 나라로 만들자고 역설하였다. (Fox, 2004, pp. 39~40)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에 도착한지 310년이 지난, 1931년에 그들의 후손들은 102명의 선조들의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2층 엠파이어스테이트(Empire State)빌딩을 뉴욕에 세웠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시편 126편을 읽고 전 미국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면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http://www.mtholyoke.edu/acad/intrel/winthrop.htm>

아이젠하워는 어린시절부터 반드시 매주 한 번씩 ‘메이플라워 공약(Mayflower Compact)’을 읽었다고 한다. 이 공약은 미국의 선조인 청교도들에 의해 1620년에 체결된 것으로 미국을 건국한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 취지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의 진리를 펴뜨리는 것이다. 이는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일관성 있는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 10. 영어성경과 미국문화

성경을 모르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Unless we read the Bible, American history is a closed book..”(Gelernter, 2005). 영국에서 성경을 믿고 그것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청교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미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선서를 하고, 미국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이 비록 집단농장의 정착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들은 성

경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미국의 지도자층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미국의 지도자층을 이루어 왔다(Fox, 2002).

그들은 미국의 건국을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 성경을 활용하였다. 실로 그러한 문서들의 94%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였고, 그 문서들의 내용 34%가 성경의 내용을 직접 인용 한 것이다(Bible literacy report, 2006). 그리하여 미국의 헌법을 제정할 때도 성경의 기본 정신과 가르침을 정치에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영감 받은 헌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국민 앞에 선서를 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나라의 법과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기로 선서한다. 그리하여 미국을 만들고 건국한 책은 성경이라고 한다(Newcombe, 2009)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민족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하여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정착촌을 만들 때도 성경에서 따온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이름을 포함하여 자식들 이름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따라 지어준다. 또한 ”하느님과 성경을 모르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말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와싱턴은 취임식에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을 선서하였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그렇게 선서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모토는 “In God, We Trust” 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당시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그 문구를 미국의 모든 돈에 써 넣게 하였고, 그 전통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도 모든 화폐에 그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역사, 경제, 예술, 문학,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을 시찰하고 관찰하여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라는 유명한 고전을 남긴 프랑스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905~1959))은 미국의 위대함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한 그들의 의로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I sought for the greatness and genius of America in her commodious harbors and her ample rivers - and it was not there... in her fertile fields and boundless forests and it was not there... in her rich mines and her vast world commerce - and it was not there... in her democratic Congress and her matchless Constitution - and it was not there. Not until I went into the churches of America and heard her pulpits flame with righteousness did I understand the secret of her genius and power. ***America is great because she is good, and if America ever ceases to be good, she will cease to be great.*** (John J. Pitney, Jr. *The Weekly Standard*, Nov. 13, 1995)<sup>8)</sup>

## 11. 성경과 공교육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주장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리하여 종교교육이나 영적인 교육은 가정이나 중

8) <http://www.tocqueville.org/pitney.htm>에서 2010년 11월 10일에 검색했음.

교단체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국가와 종교에 세워진 엄연한 분리에 대한 반동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하여 공립학교에서 성경이나 종교적인 이슈 등 갈등이 있는 사안은 기피하여 왔다. 그러나 헌법은 종교의 교리나 주장을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성경 같은 보편화된 내용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습할 소재로 사용하거나 객관적인 안목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소개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건국의 뿌리와 역사, 문화, 문학, 교육 등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신세대들이 잘 배우지 못하여 학구적인 그리고 교양적인 차원에서 맹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경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여 『The Bible and Its Influence』(2005)를 개발하여 공립학교에서 역사 과목이나 문화 과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책은 성경에 대한 한 지침서로서 성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성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문학에 있어서 성경, 문화적 관계(음악, 예술, 수사), 그리고 일생생활영어의 각 분야. 그리고 특집으로 아브라함 링컨과 성경, 헨델의 메시아, 성경과 자유, 셰익스피어와 성경 그 외 다양한 영향력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 안내서는 2008년 37개주의 179개 학교에서 그리고 3개의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Wikipedia).

그러한 추세의 취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세계의 베스트셀러요 영국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두 나라의 기초인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영미문학, 예술, 음악, 역사, 그리고 문화의 이해에 대한 절름발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How are we expect our young people to live up to America’s ideals if they are cut off from the stories, beliefs and metaphors that for hundreds of years gave those principles life?”(The Wall Street Journal, Nov. 12, 1999).

그러한 운동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명문 대학의 영어 교수들 모두가 학생들의 종교를 떠나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미국 고등학교 영어교사의 98%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하였고, 90%는 성경의 지식이 좋은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상당수의 교사와 교수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영미 문학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공립학교 학생들의 8%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경에 관한 선택과목을 택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Bible literacy report, 2005).

## 12. Ben Huh: A Story of Christ(<http://k.daum.net/qna/view.html?qid=0DC6m>)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장군이요, 문인(文人)이었던 루 월레스(Lew Wallace)(1827~1905)는 유명한 외교관이었고 문학의 천재였다. 그는 무신론자요 회의주의자인 친구 Robert Ingersoll과 함께 기

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고 그의 친구와 다짐했다. Wallace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드디어 책의 '제1장'을 쓰고는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확실성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사건이 있던 2주 후 『벤허(Ben Hur): A story of Christ』를 썼다. 이것은 Wallace가 지금까지 쓰여진 예수의 생애를 다룬 저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 1880년 이 소설은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 차례 연극화, 영화화되어 인기를 끌었다. 현대의 허리우드에서도 '벤허'와 같은 영화는 다시 제작하기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그래픽이나 모든 초현대적 영상기술을 동원하기 때문에 기법은 발달했으나 과거 영화제작은 사람들을 그대로 동원하는 등 지금의 영화제작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영화로 만든 벤허는 웅장한 스펙터클, 숨막히는 전차경주, 감동적인 인간애, 찰튼 헤스톤의 명연기, 가히 영화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이라 할 만한 영화이다. 작가는 주인공 가족과 주변에 그리스도를 접목시켜 메시아 출현과 십자가의 수난, 성령강림의 사건을 한층 극렬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예수사건이 성경 본문에 의거한 강단에서의 외침보다 한결 진지하게 공감되는 연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이 작품의 묘미가 있다.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는 단역(端役)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주연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벤허는 단역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다.

#### 영화 벤허(Ben-Hur)

아카데미-작품, 감독(윌리엄 와일러), 남우주연(찰튼 헤스톤), 남우조연(휴 그리피스), 촬영(로버트 L 서티스), 미술(윌리엄 호닝 외 2명), 녹음(MGM 녹음 스튜디오), 음악(미클로스 로자), 특수효과(아놀드 길레스피 외 2명), 의상디자인(엘리자베스 하펜든), 편집(랄프 윈터스 외 1명)상 등 모두 11개 부문 수상.

"오, 하나님!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 말은 본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가 영화의 시사회 석상에서 자신이 만든 영화를 보고 한 독백이다. 그는 웨이커 교도의 전쟁 참여문제를 다룬 수작 '우정있는 설복(Friendly Persuasion)'이나 흑백 영화의 백미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헵번 스타일이라는 헤어스타일을 유행시켰던 '로마의 휴일(Roman Holiday)'등에서 이미 영화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물론 와일러 감독이 말했다 "오, 하나님!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하는 이 독백은 자신의 작품에 너무나 감동된 심리적 기저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나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본다면 이 작품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지고 만들어졌음을 갈파한 독백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는

성경 신.구약 66권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이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는 결국 인간 예수를 증거해 보 이려다 구세주인 예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이 이 작품을 세상에 나오게 했다면 물론 감독인 와일러는 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시사회에서 받은 새삼스러운 감명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라고.....

### 13. 영어성경이 영어교육에의 중요성에 대한 필자의 경험담

나는 고등학교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친척의 소개로 피테의 파우스트를 읽으려고 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었다. 그 후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읽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체가 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서 왜 이러한 작품들이 그렇게 유명하며 노벨상을 받았는지 의문이 생겼다. 한국에서 대학 2년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영어교육과 영문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수공학으로 박사를 받고 미국 대학의 모교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인문대학 교수생활을 7년간 하였다.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6년쯤 하였을 때 인문대학에서 해마다 훌륭한 업적을 쌓은 교수를 한 명씩 뽑아 상금과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어느 저명한 언어학자요 영문학자가 뽑혀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고, 그의 기조 연설 제목이 "See through a glass darkly" 이었다. 나는 그 제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조 연설을 듣고 그 제목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연설의 요지는 그는 어려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열심히 학문을 탐구했으나,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진리를 어렵듯이 이해하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를 'distinguished professor'로 뽑아주어 고맙고 그러나 진리를 어렵듯이나마 그 그림자를 알아가지만 희망을 가지고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학문을 정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 참 후에 그 인용구가 성경의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인용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기독교인 이었고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거의 매일 성경을 공부했으나 성경에 그러한 구절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 후에 어떤 고등학교 영어교사께서 피테의 파우스트2부를 연극화 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컴퓨터 타자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는 여선생인을 알게 되어 피테의 파우스트에 대한 소개를 잠깐 받게 되었다. 그녀는 파우스트의 줄거리와 핵심을 이야기 해 주며 성경의 읊기와 내용도 드러주었다. 그 때 느끼기를 파우스트나 노인과 바다 그리고 영문학을 배우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공부한 이유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성경과 연관을 시키지 못한 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13년간 살다가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부임하여 영어교육을 가르치게 되었다.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여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하였고

Newsweek의 걸프전에 대한 승전보고의 제목이 “See through a computer darkly”이었다. 그 제목을 보고 미국 대학에서의 경험이 생각나서 읽어보니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컴퓨터였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를 통해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사일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궤도 수정을 하여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역할을 컴퓨터가 해주어 컴퓨터의 공로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m 당시 나는 생각하기를 한국의 영어학도나 영어교수들이 얼마나 이 표현을 이해하고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 그리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에서 유래한 관용어구를 선별하여 영어교사지방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교원대 영어교육학과에서 종교를 가르치려고 한다던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한다던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처지라서, 조심스럽게 준비하여 몇 명의 발언권이 센 학생들에게 내가 그러한 성경에서 유래한 관용어구를 가르치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고 그 지도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해해 주어 수업 시간에 준비한 자료를 인쇄하여 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막 시작하는데 한 학생이 ”으씨..“ 하면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기분이 아주 상하였다. 그래서 그 학생을 나중에 사무실로 불러서 왜 그렇게 거부감을 표시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자기의 친척 중에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 있는 데 가정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누나도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아 가정에 반목이 많아서 그랬지 나의 의도나 교재 내용에 대한 반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후 몇 년 후에 미국의 모교로 안식년을 가게 되었다.

그런 후 2004년 안식년을 맞아 모교인 BYU에 연구교수로 갔다. 나의 전공이었던 Instructional Psychology and Technology(교수 심리학 및 공학)과의 Development of Educational Theory 라는 과목에는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고 이 분야에서 유명한 Inouye교수가 가르쳐 그 과목을 칭강 하였다. Inouye 교수께서는 그 과목에서 각 자의 교육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참고할 책 몇 권을 소개해 주었다. 그 책 중에 Parker Palmer(1993)의 To Know As We Are Known 이라는 책이 있었다. 그 책을 구입하였으나 제목을 보았을 때 무슨 책인지 감도 잡히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안식년을 마치고 그 수업에서 구입한 책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약 2년이 지나고 『The Education of the Heart』 (Osguthorpe, 2002)라는 교육학 책을 읽는 데 그 책을 훌륭한 책이라고 추천한 분 중의 한분이 『To Know As We Are Known』의 저자인 Parker Palmer(1993)이었다.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책장에 꽂아둔 그 책이 생각나서 찾아 뒤져 보게 되었다. 그 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며 세계의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 책을 읽고 현대판 이성과 객관주의에 망가진 교육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 책의 제목이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나도 그 책의 제목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 일반 한국의 교육자들이나 영어교육자들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았을까 궁금해 하면서 읽었다.

그 책은 교육자들의 오랜 고민거리요 특히 한국교육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판단되었다. 그 책의 핵심은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자, 가르치는 자,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의 요소들이 상호 연관성을 갖으며 진리가 실천되는 공동체의 장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랑이 없이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원생들과 세미나 하면서 그 책을 사용하였고, 인터넷에 여러 번 뒤져보아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한국어로 출판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그 책이 한국어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 아마 성경에서 인용한 그 제목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는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의역해서 번역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어교육을 전공하려면 영어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한국교원대 영어교육 전공·부전공하는 1~2학년 학생들 45명에게 영어 학습에 영어성경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냐고 조사를 했을 때 2명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 명은 고교때 영어선생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었고 다른 한 명은 대학에 와서 미국으로 유학간 친구가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원대 영어교육과 대학원생 그리고 현장영어교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영문학 수업을 택한 학생들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영어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빈약하였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중·고등학교 때 영어교사들이 몇 분 계셨으나, 성경의 중요성을 말해 준 교사는 하나도 없었고, 한국 대학의 교양영어 2년 동안 5~6명의 영어교수 중에도 그러한 정보를 주신 교수는 하나도 없었다. 고등학교 때 1명의 영어교사가 영어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교과서의 부록에 있는 그리스 신화를 읽으라고 말씀해 주신 교사가 있었고,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으나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도 없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영어교과서나 참고서의 내용에 성경에 대한 안내나 내용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오랜 동안 여러 번 경험하면서 결론은 영어교육 전공자에게 영어성경이 영어권의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의 이해에 기본이 되는 지침서 인데 왜 교육과정에는 영어성경을 소개하거나 가르치는 과목이 없으며, 또한 영어교육자들이 영어성경이 영어교육을 하는 데 중요하다는 소개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영어교육과에서 영어성경에 대해서는 영미 문학 수업에서 산발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이며 정규적인 교과목도 없다. 그리고 한국 영어교육의 대표 학회인 한국영어교육학회의 학회지인 English Teaching에도 유성덕(1985)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어성경의 위상이나 중요성을 논한 논문이 2010년 현재까지 한편도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정을 수정할 때 성경에 관련된 과목도 개설하여 가르치자고 제언해 보았고 영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아니면 교양과목에서 가르치자고 건의해 보았으나 학과장의 말에 의하면 두 제안 모두 “단칼에 찔렸다”는 것이다. 영어교육과 학부나 대학원생들 그리고 현장의 영어교사들에게 미국의 모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 미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교수생활을 7년간 한 나 자신도 미국의 모토를 모르고 미국에서 13년간 생활하였고 영어를 배운지 40여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미국의 문화를 가르치고자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미국의 화폐에 새겨져 있으며 그 말이 미국의 모토인줄을 그리고 성경이 영어교육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야하는지를 인생의 황혼기에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을 만든 책이 성경이었고(Schmidt, 2004; Newcombe, 2009;), 성경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Christensen, 2009; Cook, 2010).

음악에 조예가 없고 관심이 별로 없는 나였지만 헨델의 메시아의 배경, 그리고 하이든이 헨델과 같은 천상의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 천지창조를 신앙으로 작곡한 일, 그리고 그의 제자인 베토벤이 자기의 스승과 같은 천상의 영감 받은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 5년간 심혈을 기울여 미사곡을 작곡할 일 등 성경하고 관련을 지을 때 의미가 있고 관심이 있게 된다. 한국 역사도 그렇다. 미국에서 하버드의 연칭연구소의 두꺼운 책, 『East Asia』, 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 chapter로 커버하는 것에 실망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도 세계사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관련을 지어 다시 정립되어야 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함석헌(2003)옹의 안목과 고집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영어교육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성경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역사”이라는 제목의 구절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듯하니 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잠깐 나왔으나 그것은 사슴에게서 뿔을 자르는 것 같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이 글이 이 글 된 까닭은 성경에 있다, 쓴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적 입장에서라도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자리에서만 역사를 쓸 수 있다. 똑 바른 말로는 역사철학은 성경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서양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다. 역사는 시간을 안경으로 보는 이 성경의 자리에서만 될 수 있다. 기독교에 관한 것은 이미 다 아는 것으로 하고 썼던 글이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이에겐 불편한 점이 많을 줄 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고 아니하고 간에 성경을 한번도 읽지 않고 인류 역사를 알자는 것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읽는 이에겐 성경읽기를 권하는 의미로 스스로 수고하기를 바라고 주도 아무 것도 아니 달았다.(『뜻으로 본 한국역사』, 12~13)

### III. 결론 및 제언

영어 성경은 영미 언어, 문학, 예술, 사회 및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러한 영향은 방대하며 본 논고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 바와 같이 영어성경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 문학을 이해하고 영국과 미국의 사회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기본이요 첩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는 그러한 영미 사회 문화 및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교육자들은 영미 문화와 사회 역사 그리고 영미문학을 배우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영어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영어와 영미문학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성경은 세계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이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헌법의 정신은 정치적으로 국교를 정하지 말라는 미국의 국부들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종교를 정치에 사용하지 말라는 장치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공교육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배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류 역사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문학 작품을 쓰다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벤허의 작가 월리스가 그러했듯이 교육 특히 영어교육에서 성경을 무시하고 배재하고서는 올바른 영어교육을 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가요 웹스터 사전을 개발한 웹스터는 "Education without the Bible is useless."(Schmidt, 2004) 라고 하였다.

성경의 이야기는 서양문학 그리고 서양문화 그리고 세계 문학과 문화의 원형들(archetypes)을 제공하고 있다. 성경의 나타난 이야기와 인물 그리고 플롯 그리고 장르가 서양의 문학과 문화 특히 영문학의 문학과 문화의 원형 혹은 뿌리가 되고 있다. 원형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문학 속에 나와 있는 신화들이나 동화들 속에는 그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정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제들과 똑같은 것들을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상이나 꿈, 망상, 및 광희(狂喜) 상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들과 연상이 원형적 사고(archetypal idea)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생생하면 생생할 수록, 이 이미지들에는 더욱 강한 감정적 색조가 묻게 되며 이 이미지들은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매혹시킨다. 이 이미지들은 그 기원을 원형에 두고 있는 것이다. 원형이란 그 자체로서는 표현 불가능한 것이며,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정신 구조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리하여 원형은 문학에서 나타나는 상징, 인물, 플롯 패턴이다. 성경은 이러한 원형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 그리하여 성경의 이야기, 플롯, 상징 장르 등은 기독교를 믿는 서양의 문학과 문화에 원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형이 서양 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학과 문화에 친숙하게 만드는 뿌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경이 영감을 받은 책이라면 성경의 장르도 영감 받은 것이다. (Frye,1982; Ryken,1984). 성경은 서양문명 뿐만 아니라 동양의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동서양을 통털어 어떤 원형들과 뿌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RABBI DANIEL LAPIN은 "The Bible is Planet Earth's operating system thinly disguised as a piece of literature."(Kroll, 2010)

한국 교육의 목표와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교육의 목표는 1. 영어 사용의 초보적인 기능을 길러, 쉬운 영어를 이해하고 생활 주변

에 관한 내용을 간이한 영어를 써서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영어 학습을 통하여 국제 사회 속에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하고, 장차 국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한다. 3. 영어 학습을 통하여, 영어 사용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욱 깊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기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그리고 언어소재 중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 영어교육에서는 성경의 이야기나 비유 등 성경의 내용과 관계된 것은 금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종교는 문화의 꽃'이라고 하며 성경은 영미인들을 포함하여 세계의 문화 문학 예술을 이해하는 원형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이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학교 교육에서 삭제한다면 어떻게 건전한 소양을 가르치고 인류 공통의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성경이 영감 받은 경전이고 또한 성경에서 위대한 사상과 영감을 받아 예술 작품 그리고 문학 작품 그리고 위대한 영화가 만들어 졌고 위대한 철학과 사상이 싹트게 되고 연류 되었다면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탄생하였다면 그러한 원천이 되고 원형을 제공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평한 사회 그리고 건전한 사회가 성경을 배제하고 가능하겠는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은 링컨의 개티즈버그 연설이라고 한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원형이 되고 있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의 정신이 잘 표출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과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산상 수훈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다. 영어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어라는 국제어를 통해 온 세계인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서로의 발전과 인류 공통의 행복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한 수단이다(최수영, 2007, 2008).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기독교의 교육자 팔머는 가르치는자 배우는 자 교육과정 등 모든 요소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정립하고 진리가 실천되는 공동체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 사랑 즉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웃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다. 그리고 진리는 “현재 존재하고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다.” 왜 진리가 사물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지식인가? 지식은 내가 우주의 한 축이 되고 주위의 사물 인격체 등이 한 연합체 즉 공동체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를 정립했을 때 드디어 지식이 되며 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 (knowing is loving)는 것이다(Palmer,1993; 이종태, 2006; 최수영, 2008).

벤허를 쓴 루이스 왈리스 같이 우리는 역사상에서 성경의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배제하고는 교육, 진리, 그리고 인격완성에 도달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무릎을 꿇으면서 온 인류의 스승이요 세상을 비치는 참 빛이라는 것을 깨닫을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영어가 국제어이고 세계가 의사소통하는 기본언어이니 영미인들의 언어와 문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의 문화 및 가치관을 연구하는 포괄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영어성경의 내용과 그것의 사회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고 영어교육 전공자들에게 교육적이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영어성경이 영어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연구하고 영어교육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학교 영어교육에 어떻게 적용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 해결 방안은 성경과 교육을 통달하고 있는 신앙인이 영어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이 분야의 저술 작업과 학술 활동을 통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The Bible and its influence* 같은 학술적인 저술 활동과 성경을 통해 탄생된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베토벤의 장엄미사, 왈리스의 벤허 같은 영어교육 분야의 위대한 작품(저서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이 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본 필자는 그러한 영감 받은 천상의 작품이 영어교육을 위해 탄생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그리고 몇몇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신앙과 학문]은 이러한 노력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구 실천기관이라 사료된다.

요 근래 이 명박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공정한 사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모범으로 가르친 원리를 실천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가 없다.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한국이 성경이 토대가 된 미국의 헌법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한국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자본주의, 도덕적 인간, 인격의 완성에 있어서 성경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고는 꽃을 피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문화의 꽃은 종교이며 피테가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문화가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진보하고,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비치는 기독교의 숭고성과 도덕적 문화를 넘어설 수는 없다." (Halley, 2007: 24)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김봉군·최혜실. (1988). 『문학교과서』. 서울: 지학사
- 박해연. (2010). '스피치 라이터' 소렌슨. 조선일보 사설, 만물상 논설위원, 2010.11.01
- 이임광. (2010). 백지영 앵커 TV <뉴스테스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04681](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0468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002). 서울: 대한성서공회.
- 유성덕. (1985). 英文學에 影響기친 聖經文體의 特色, 『영어교육』 30호, 21~640.
- 유성덕. (1991). 『성경과 영문학』. 서울: 종신대학출판부.
- 조신권. (1987). 『영문학 속에 나타난 성서의 향기』, 서울: 풍만출판사.
- 조신권. (1992). 『성서문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최수영. (2008). 영어성경과 영어교육. 『영어교과교육』 7호 (2), 53~86.
- 최수영. (2010). 영어성경이 영미 어문학-문화에 끼친 영향: 구약성경 창세기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6)』 4.
- 최재현. (2004). 『다시 읽는 존 밀턴의 실낙원』. 경북대학교출판부.
- 함석헌. (2003).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 Bible literacy report: (2005). The Bible Literacy Project. Front Royal, VA.
- Bible literacy report II: (2006). 『The Bible Literacy Project』. Front Royal, VA.
- Carroll, J. B. (Ed.).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enjamin Lee Whorf』. Cambridge, Mass.: M.I.T.
- Choi, Soo-Young. (1986). Solving the problem of the Korean topic/subject particles *nun* and *ka*: A paradigm and a text analysis. 『Linguistics 24』, 351-369, The Hague: Mouton.
- Christensen, Clayton. (2009). "The Importance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출업연설,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N.H., May 16, 2009)
- Ellis, Joseph J. (2007). 『American Creation: Triumphs and Tragedies at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New York: Random House.
- Frye, Northrop. (1982). 『The Great Code: The Bible and Literature』. New York: Hartcourt Harvest Book
- Halley, Henry H. (2002). 『Halley's Bible Handbook with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27th ed.). Grand Rapids, Michigan: Zonbervan.
- Kroll, Woodrow. (2010). "The Bible's Influence on America's Culture",  
[http://www.centerforbibleengagement.org/index.php?Itemid=7&id=22&option=com\\_content&task=view](http://www.centerforbibleengagement.org/index.php?Itemid=7&id=22&option=com_content&task=view)
-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World Bible.
- Newcombe, Jerry. (2009). 『The book that made America: how the bible formed our nation』. Ventura, CA: Nordskog Publishing.
- Payne, Thomas. (1776). Common sense. <http://www.ushistory.org/paine/commonsense>
- Ryken, Leland. (1984). 『How to read the Bible as literature』. Michigan. Zondervan.
- Schippe, C., Stetson, C. (Eds.). (2005). 『The Bible and its influence』. Fairfax, VA: BLP Publishing.
- Schmidt, A. (2004). 『How Christianity Changed the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 Stevenson, Burton. (1967). 『The Home Book of Quotations - Classical & Modern』.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 Youngblood, R. F. (1991).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Baker.
- Whiston, W. (Trans) (1981). The Antiquities of the Jews. Chap 13: 36~37. 『The complete works of Flavius Josephus』, Kregel Publication. Grand Rapids: Michigan.

Abstract

**Soo-Young Cho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English Bible and its influence on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An implication for the betterment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n Public Schools.**

English has become a world or a global language. The English Bible has a great impact on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Therefore, knowledge of the Bible is essential in learning English. The Bible has continued to be philosophically, ethically, religiously, politically, economically influential in the world cultures, and so not to know it means not to understand a great portion of world cultures.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Bible in English language, literature, history, and culture.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s why and how to use the Bible in English education, and suggests some rationales for use of the Bible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Key words: English Bible and English Education, English Education and the Bible,**